

전남 중부권

산수 뮤지컬 '영암 아리랑' 郡-기획사 대립 무산 위기

영암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산수뮤지컬 '영암 아리랑'이 군과 공연기획사의 대립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영암군은 총 사업비 430억원 중 230억원을 민간투자자로 조달할 기획사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고, 기획사는 군의 사업계획 선(先) 보안을 주장하며 맞서는 과정에서 정부 투·융자 심사를 놓쳤기 때문이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대상 중 영암군의 산수 뮤지컬 재검토 기본계획서와 민간사업자 투자의향서 등이 접수되지 않았다.

이 사업은 전남도 감사결과 공연장 부지 확보와 투·융자 심사 편법 처리

등으로 재심사 대상이지만 심사 제출 기한까지 이행하지 못했다.

영암군은 민간투자자인 ㈜영아트테이먼트가 투자의향서를 넘겨주지 않아 투·융자 심사서류를 내지 못했다는 주장이지만 군과 협약을 체결한 민간투자자는 군의 부실한 기본계획이 원인이라며 맞서고 있다.

영암군의 한 관계자는 "기획사가 투자의향서 제출을 미루는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자를 찾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영아트테이먼트의 한 관계자는 "부실한 기본계획 등의 보완과 시정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향서를 내지 않은 것"이라며 "기본계획 등이 보완되며 지금이라

도 의향서를 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사업 추진 초기 파트너였던 양측이 이처럼 대립하면서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공연사업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반기 투·융자 심사를 받기 못하면 이미 확보한 38억원의 예산도 반납해야 하며 지역여론 악화로 내년 예산 확보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사업추진에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영암군은 관광수익과 지역 문화 이미지 제고를 등을 위해 월출산 국립공원 사자 저수지에 산수뮤지컬 공연장을 추진해왔다.

/중부취재본부=이상휴기자 lsh@



15일 화순군 농주읍의 한 농장에서 농민들이 출하를 앞두고 복숭아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화순=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한전 나주 신사옥 건립 본격화

현장 사무소 이어 선발대 상주... 내달 착공 가속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추진중인 한국전력(KEPCO)의 나주 신사옥 건립공사가 본격화됐다.

15일 나주시에 따르면 한전은 현장 조직인 본사 신사옥 건설소를 지난 1일 나주배박물관 1층에 마련한데 이어 16일부터 선발대 5명이 상주하는 등 9월 착공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나주시 금천면과 산포면 일대에 건립될 한전 신사옥은 부지 14만9372㎡, 연면적 9만3222㎡, 31층 규모로 신재생에너지 20% 이상 적용한 에

너지 절약형 최첨단 건물로 지어지며 2880억원이 투입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9월 착공 전 현장상주 개시는 한전의 혁신도시 이전 불확실성을 말끔히 해소한 계기로 평가되고 있으며 타 공공기관의 이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시장·부시장 관사를 리모델링해 한국전력 본사 신사옥 건설팀 숙소로 제공기로 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화순 킥복싱 타이틀매치 성료

지난 13~14일 이틀간 화순 하니움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코리아 그랑프리 신인전 및 전국킥복싱 챔피언 타이틀매치 대회'가 성료됐다.

화순군·전남도킥복싱협회 공동 주최, (사)한국킥복싱 전남도협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1000여명의 선수 및 임원 등이 참여했다.

대회결과 헤비급 챔피언은 주만기(대무림 카이저) 선수가 차지했으며, ▲패더급 김진혁(인천 청우) ▲웰터급 이재욱(논산 무인진) ▲라이트급 헤비급 최철웅(대구 피어리스) 선수가 각각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탐스러운 화순 농주 복숭아

15일 화순군 농주읍의 한 농장에서 농민들이 출하를 앞두고 복숭아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화순 고인돌 체계적 보존·관리 나서

주민 등 참여 공동 워크숍

화순군이 '세계문화유산(제997호)'로 등록된 지역내 고인돌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에 발벗고 나선다.

화순군은 지난 1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도곡·춘양면 주민과 동북아지역 연구소, 한양대, 서울대, 문화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 보존관리 종합

기자노트

공무원 인사에는 환희와 좌절이 있다. 시대에 따라 인사원칙과 기준도 큰 변화를 가져온다.

지난 1990년대에는 6급이하 하위직은 연공서열이 우선시됐고, 5급(사무관) 승진 때는 시험제와 심사제가 혼용되면서 인사의 어려움을 받기도 했다.

근대 민선시대에 들어서는 갈

제를 출제하는데 2개문제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능력검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숨은 의도가 있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제는 새로 시도되고 있는 '논술시험'이다. 최고 인사권자가 문제도 출제하고 채점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객관

논술시험으로 사무관 인사?

수록 능력을 위주로 한 발탁인사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발탁인사는 최고 인사권자의 의중이 절대적이라는 불합리성을 안고 있다. 자칫 편향적이고 독선적으로 흐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광산군은 지난 10일 5급(사무관) 승진 예정 인원 및 대상자 명단을 예고했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1명과 간호직 1명이다. 지난 6월에 행정직 1명과 시설직 1명의 사무관이 명예퇴직자 이후 자리메김을 위한 것인데 시설직 대신 간호직을 승진키로한 점이 눈에 띈다.

이번 인사방식에서 '논술시험'이 추가된 점이 특이하다. 5개 문

성과 공정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정인의 주관에 개입될 여지가 있으면 시험은 명분용으로 전락하게 된다.

인사권자의 편향을 막기 위해서 인사기준이 마련되고 있음을 감명하는 안된다.

인사는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는 투명성이 있어야 하고 공감대도 형성될 수 있어야 한다. 인사관행은 선인자들의 지혜가 모아진 것이다. 이런 결정체가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타파되어서는 안된다. 아프리카 속담에 '죽어가는 노인의 지혜는 불타는 도시관과 같다'고 한다. 경험이 축적된 관행이 중요한 이유다. /wtkee@kwangju.co.kr



기 원 태

(중부 취재본부 기자)

10월 26일 순창군수 재선거 예비후보

민주 2·무소속 1명 등록

오는 10월 26일 치러지는 순창군수 재선거에 3명의 예비후보가 도전장을 냈다.

순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일 첫날인 지난 14일 김병음(53·민주당) 전 도의원, 황숙주(64·민주당) 전 감사원 국장, 이흥기(66·무소속) 전 인천공항 운영본부장이 등록했다.

예비후보 등록자들은 명함·공약집 배포, 홍보물 발송,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어깨띠·표지물 착용, 문자메시지 발송, 선거사무소 설치와 사무소에 현수막 내걸기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추석을 즈음해 2명의 예비후보자 중 공천자를 확정할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순창군수 재선거는 민주당 공천자와 무소속 이흥기 후보 간의 양자 대결로 전개될 전망이다.

이번 재선거는 민주당에 대한 지역 유권자(6월 30일 현재 2만5120명)의 재신임 여부와 3선에 성공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강인현 전 군수의 영향력이 얼마나 작용할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 전 군수가 이미 사실상 특정후보 지지를 밝힌 만큼 그의 조직이 선거에 얼마나 관여하게 될 지와 지역 출신 이강래(남원·순창)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얼마나 작용하게 될지도 관심 사안이다.

아울러 출마를 준비했다가 포기한 조동환 전 순창교육장과 강대희 전 도의원이 어느 후보를 지원할지도 변수가 된다.

한편 순창군수 재선거 후보자 등록은 10월 6~7일 이틀간이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남원 '삼동굿놀이' 재현

백중인 지난 14일(음력 7월15일) 남원시 보절면 괴양리에서 전통세시 풍속놀이인 삼동(三童) 굿놀이가 재현됐다. 풍년농사를 기원하고 주민단합을 위해 열리는 삼동굿놀이는 남원지역 대표적 민속놀이이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군산 세계 철새축제 11월 16일 개최

겨울철 최고의 자연생태축제로 부상하고 있는 '2011 군산 세계 철새축제'가 오는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군산시 금강 철새조방대와 금강호 일원에서 개최된다.

군산 철새축제위원회는 겨울철 금강을 대표하는 겨울철새인 가창오리가 안정적으로 금강호에 도래하는 시기와 최근 기상자료를 바탕으로 축제 일정을 확정했다.

철새축제위원회는 앞으로 주관대행사 선정과 자원봉사 모집과 교육 등 철새축제 준비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철새전문가 강희영 박사는 "가창오리는 10월말 도래하면 장거리 이동의 후유증으로 먹이를 찾아 급격하게 변화한다"며 "금강 가창오리가 안정



을 찾는 11월 중순께가 가장오리의 화려한 군무를 감상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첫 선을 보인 군산 세계 철새축제위원회는 지역주민 대표를 비롯해 철새 및 관광·환경 전문가가 참여한 철새축제의 지속적인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구성된 기구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군산 대표 하천 경포천 정비 차질

새만금 개발 매립토 방조제 호소서 확보 방침 정해

국비들어 바다 준설 토사 운반 배길 추진 물 건너가

군산시내를 가로지르는 경포천 정비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새만금 내부 개발에 필요한 매립토를 방조제 안쪽 호소에서 확보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경포천 정비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때문이다.

15일 군산시에 따르면 경포천은 새만금내 매립토를 방조제 바깥(해상)에서 확보한다는 정부의 당초 구상에 따라 매립토를 운반하는 배길로 예정됐던 곳이다.

군산시는 경포천이 토사운반을 위한 통로로 확정되면 수심을 깊게 하기 위한 준설과 둔치 정비사업을 국

비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매립토를 방조제 안의 호소에서 파내 확보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경포천 배길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군산시로서는 이 사업을 자체 예산으로 추진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 사업은 영암동 송경교~미장동 군산원형 공관장 구간(길이 2.25km)의 하천 바닥을 준설하고 둔치에 친수공간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군산시는 29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

될 것으로 추정했다.

경포천이 통과하는 신도심에는 아파트단지가 잇따라 들어서고 있어 친수공간 조성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재정사정이 열악한 군산시로서는 이 사업은 국·도비 등의 지원이 없으면 순조롭게 진행하기 어려운 처지다.

군산시 관계자는 "전액 국비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경포천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돼 난감하다"면서 "경포천 사업은 개발계획도 세워져 있고 일부 사유지의 보상도 이뤄진 상태인 만큼 정부나 전북도를 상대로 재해예방 관련 예산 등을 지원받아서라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남스

뉴스 브리핑

전주시 태조 어진 모사본 제작 일반 공개

전주시는 태조 어진(보물 제 931호)의 모사본을 제작해 16일 일반에 공개한다. 모사본은 초상화 전문가인 권오창 화백이 그린 것으로 크기와 색깔 등이 원본과 거의 같다.

이 작품은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에 있는 조선시대 묘사(廟祠)인 경기전(慶基殿)의 어진박물관에 전시된다. 현재 어진박물관에 있는 태조 어진의 진본은 수장고에 보관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1872년에 그린 진본이 오랜 기간 외부에 전시하기 어려운 회화작품이어서 어진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을 위해 모사본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익산시 폐 휴대폰 1만여대 수거

익산시는 지난 4~7월 '범시민 폐휴대폰 모으기 운동'을 추진, 1만여대를 수거했다.

이는 전북도내 총 수거량 3만 5208대 가운데 28%를 차지, 도내 1위를 차지하는 수량이다.

익산시는 폐휴대폰을 수거해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한편 폐휴대폰을 판매해 지난해 1988만원, 올해 900만여원의 수익금을 올렸다. 익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수익금 전액을 불우 이웃돕기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美 스탠퍼드대 인재찬 교수 지평선 학당 특강

(재)김제사랑 장학재단(이사장 이진식)은 지난 12일 세계적인 수학자인 미 스탠퍼드 대학 인재찬 교수를 초빙해 지평선학당 특강을 가졌다.

이번 특강은 관내 학생을 비롯한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람직한 자녀교육과 미래의 직업'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교육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안 교수는 초·중·고교 수학 전공 과정을 424편의 동화화 정리하는 등 세계적인 수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전북취재본부=홍운성기자 hnews@

고창보건소 주민대상 건강 원스톱 서비스

고창군보건소는 개인별 건강 맞춤 프로그램인 '건강 원스톱 서비스'를 연중 운영한다.

서비스 대상은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가진 건강취약군 및 질환군 30세 이상 주민을 비롯해 ▲국가 건강검진 수검자 중 보건소 건강검진사업 참여 동자 ▲타 보

건강사업 참여자 중 희망자 ▲의료기관에서 의뢰받은 자 등이다.

건강 원스톱 서비스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성분 검사 등과 건강취약군 절주, 금연, 스트레칭 교육 및 상담 등을 제공한다. 문의(063-560-3814)

/전북취재본부=윤창영기자 young@